

시행착오 줄이고 예산·행정력 낭비 방지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 출범

지역개발사업 로드맵 제시
매주 정기회의의 쟁점사안 조율



주요사업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이 지난 25일 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다리 행정점검단' 운영에 나서 주목된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부서 담당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는 속담에서 착안해 붙여진 이름으로 점검단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복 투자 및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영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주요 사업부서 담당 계장이 단원으로 참여한 점검단은 앞으로 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연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간 유기적 관리를 통해 추진절차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재시공 등 재정적 낭비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점검단 첫 회의에서는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홍암 나철 기념관'을 비롯한 17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점검단은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점

검단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쟁점 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 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점검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능력있는 보성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책 읽는 즐거움...찾아가는 여름방학 독서교실

곡성교육문화회관 5개 초교 112명 대상 30일부터 운영

곡성교육문화회관(관장 서용진)은 '찾아가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독서교실은 참여를 희망한 지역 5개 학교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마다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각 학교별로 육과초등학교는 그림책을 읽고 클레이 재료로 이야기 표현하기 활동을 하며 오산초는 책 속 인물을 쿠키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곡성중앙초는 책을 읽고 북아트 키트를 활용해 작품 만들기를 진행하며 역할극 놀이와 미니 북아트 만들기 활동도

한다. 입면초는 작가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수업을 진행한다.

서용진 곡성교육문화회관관장은 "많은 학생들이 독서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겨울방학부터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방학 동안 집중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책과 친구가 돼 책이 주는 즐거움을 듬뿍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병원·목욕탕 등 감염병 예방

고흥군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이 급증함에 따라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한다. 감염 시 발열, 두통,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검사대상은 대형건물, 병원, 복지시설,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다.

냉각탑수와 수계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균이 검출될 경우 재검사와 청소·소독 등의 위생지도도 시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약 17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고흥군은 사전 예방활동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인구감소 극복 캠페인 지난 26일 보성군 공무원들이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인구 감소 극복 시책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500여명 참석 성료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울포해수욕장센터 앞 광장에서 김철우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과 고흥군 수협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주제로 여촌계협의회(회장

이종덕)가 주최하고 보성군과 고흥군수협 후원으로 열렸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로패 수여와 결의문 낭독, 어업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노래 자랑 등이 진행됐다.

특히 어업인들은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바다환

경을 지키며 불법어업 근절로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가꾸어 나가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인 바다를 보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패류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어촌계 소득지원 확대 등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수산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섬진강천문대 '여름방학 별자리교실' 내일부터 4일간 35명씩 접수

곡성섬진강천문대가 새로운 야간 감성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는 깨끗한 밤하늘에서 펼쳐지는 별들의 향연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연일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곡성섬진강천문대는 올해 내부정비사

업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관측환경을 구비했으며, 이번 여름에는 목성과 토성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8월1일부터 4일간 여름방학 별자리교실도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이 포함된다.

가족으로 매일 35명 정원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사전에 선착순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천문대 이용과 여름철 별자리교실 참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곡성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자매결연 도시 중지주시 청소년 초청 목재체험 등 교류행사

구례군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지주시의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교류활동을 펼쳤다.

구례군과 지주시는 지난 2003년 자매결연을 한 이래 2009년부터 격년제로 청소년 교류단을 파견해 문화체험 및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다.

지난 24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군과 지주시 학생 간의 문화교류 행사로 구례중학교 밴드동아리와 구례여중학교 댄스동아리가 실력을 발휘했다.

지주시에서는 합창과 중국우수전통문화공연 등으로 답례했다.

청소년 교류단은 25일-28일에는 목재



구례군 자매도시인 중국 지주시의 청소년교류단이 구례군을 찾아 지역 학생들과 함께 목재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문화체험을 하고 화엄사 등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봤다. 또 우수한 교육 환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영

어 수업을 참관했으며 구례교육지원청에서 교육 및 체육 활동 교류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투자자모임

- ▶법원경매 진행/낙찰물건외 기타 부동산
- ▶1억원 투자시 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
-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 ▶투자금 1억원 이상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